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 공모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 이해찬 국무총리, 최병선 경원대 교수)가 주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에서 송복섭(한국), 김영준(한국), 피에르 아우렐리(이태리), 장 피엘 뒤리그(스위스),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스페인) 등 5명의 당선자와 장려상 5명이 선정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21세기의 세계적인 모범 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시행된 도시개념 국제공모는 지난 5월 27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대상지 자료 배포(7. 12)와 질의응답(7. 12~7. 29) 및 현지답사 등 4개월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10월 31일 작품접수를 마감하였고, 국내외 저명한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 4일간 심사하여 당선작을 발표했다.

전 세계 25개국에서 121개(국내 57개, 국외 64개) 작품이 출품되어 이 중 김영준(한국) 「Dichotomous city」과 송복섭(한국) 「Thirty bridges city」, 피에르 아우렐리(Pier Vittorio Aureli, 이태리) 「A Grammar for the city」, 장 피엘 뒤리그 (Jean-Pierre Durig, 스위스) 「The orbital road」, 안드레스 페레아 오르테가

(Andres Perea Ortega, 스페인)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등이 당선작으로 결정되었고, 장려상으로는 최현규(한국)의 「비보(裨補)」, 위르겐 쿤츠만(Jurgen Kunzemann, 독일) 「City in Flow」, 스미야 마모루(Sumiya Mamoru, 일본) 「Archipelagic city」, 토마스 푸셔(Thomas Pucher, 오스트리아) 「Yeon Meong(음양)」, 크리스티안 운두라가(Cristian Undurraga, 칠레) 「Nurturing a new urbanity」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인 David Harvey(미, 공동위원장과 Nader Tehrani(미, 공동위원장), Arata Isozaki(일), Winy Maas(네덜란드), 민현식, 은영태, 유걸, 박삼욱은 이번 심사를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도시 디자인에 기여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환경 친화적인지,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였는지, 도시가 편리한지, 보편타당하고 다양한 가치를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다.

당선작 중 특히 김영준의 「Dichotomous city」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시 마스터플랜보다는 정보들을 나열하고, 도시와 자연의 조화 등 이질적인 현상들을 중첩하는 등 도시건설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런 접근방법은 다른 당선작의 도시개념을 구체적으로 조직해내는 원칙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송복섭의 「Thirty bridges city」에 대해서도 “고밀도의 도시를 지향하여

건립토록 하는 등 창의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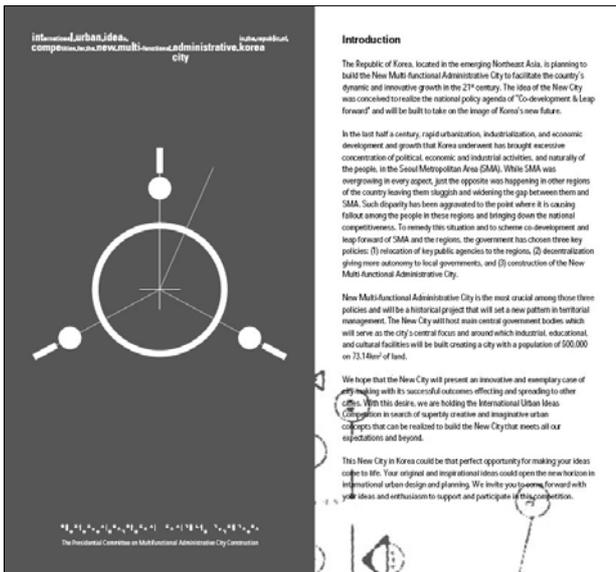
국제공모 심사위원장인 David Harvey 교수는 당초 1등·2등·3등을 각각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작품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도시건설계획에 각 작품들의 아이디어를 고루 채용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공동 수상을 결정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단순 신도시를 뛰어넘어 한국의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 이후 도시건설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하여 당선작 선정에 신중을 기했다고 심사 후기를 밝혔다.

당선작 5팀에게는 각 10만불, 장려상 5팀에게는 각 2만 6천불의 상금이 수여되며, 선정된 당선자들에게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에 참여하는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새롭게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대상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일원·공주시 장기면 일원으로서 약 73.14㎢(7,314ha)의 대지에 50만명의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담당할 주 기능은 국가 중앙행정이며, 부기능은 정책연구, 문화·국제교류, 대학, 첨단산업, 관광레저 및 기타 도시 기본 서비스 기능이다. 따라서 재경·교육·과기·문화·관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설·해양부 등 12부와 기획예산처·법제처·국정홍보처·국가보훈처 등 4처, 국세청·소방방재청 등 2청 총 49개 부처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겨가게 되며, 대상지 경계로부터 4~6km(약 224㎢) 지역이 향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청사건립 공사는 2008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설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게 되며 이전비용은 약 1조6,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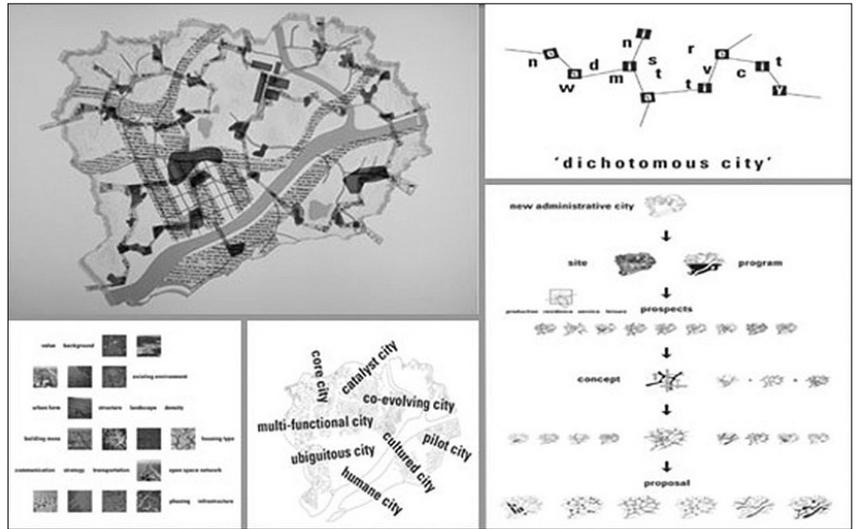
당선작 / **Dichotomous city**
 김영준(주, 김영준 도시건축사사무소)

작품개요

'The Dichotomous City'는 기존 지역의 개발 습성과 성향을 유지하면서 영역에 대한 좀더 불규칙적이고 탄력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그것은 도시 조직이 막연히 확장되는 국면 대신에 전이, 이동, 교류 등 불확실성을 매개로 변환, 부가, 대체의 접근이 열려있는 일련의 '유연한 지도'를 마련하는 전략이다.

심사평

이 작품은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의 수단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The Dichotomous City'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설계프로세스(Process)를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작품은 정보 나열, 현상 표현, 관계 분석, 복잡한 패턴의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도시의 현황에

대한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시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고, 시스템을 겹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이러한 기법이 다양한 설계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당선작 / **Thirty bridges city**
 송복섭(한밭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작품개요

도시는 주요 기능이 집중된 직경 3.5km의 원형 도심 부를 중심으로 건설된다. 도심을 둘러싸는 Eco-Ring'은 도시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민공원 및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필요에 대응하도록 계획되었다. '다리위의 도시'는 미래지향적 도시를 지향함으로써 '강을 느끼는 삶'을 구현할 것이다. 강변에는 레저, 스포츠, 위락, 주거가 혼재함으로써 활동적이고 친환경적인 삶을 고무한다.

심사평

공간배치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이 작품은 개발밀도에 대한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어 원형의 도시 중심부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원의 외곽지역은 자연상태로 유지하는 반면 원의 내부에 다양한 이벤트, 공간, 도시적 형태를 수용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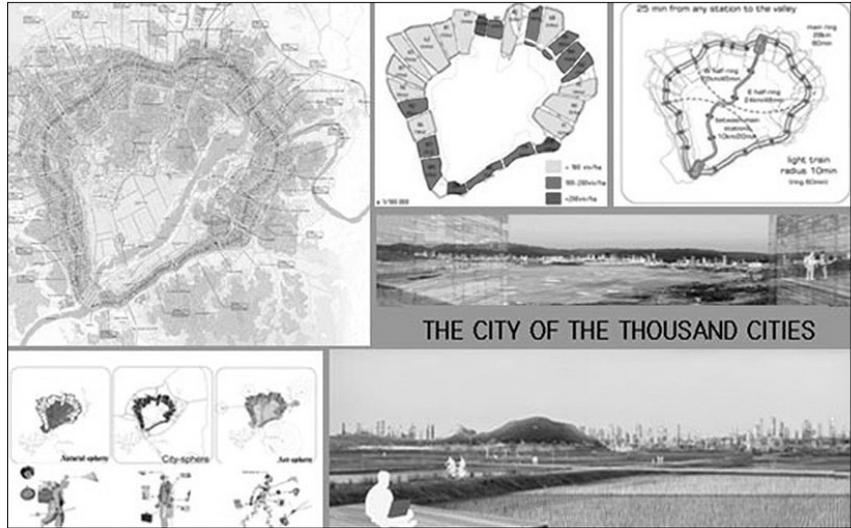
있게 함으로써 공간적 근접성을 제공하는 설득력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의 중심부를 금강이 관통하고 있는데, 다리를 중요한 설계요소로 활용하고 있다. 30개의 다리는 개별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총체적으로 가능하며 두 지점을 연결하는 단순히 통과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금강

의 중심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강을 축재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정부청사, 엔터테인먼트, 기타 설계요소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계획요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의 독특한 기하학적 표현은 가로형태와 격자형이 제시하는 무질서한 혼란과 환상형 도시의 강력한 형태를 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당선작 / The city of the thousand cities
Andres Perea Ortega / 스페인

작품개요

- 제한이 없는 도시, 지속적인 도시,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
- 모두가 원하는 도시와 건축물의 건설은 가능하다.
- 시민들의 생활과 자연의 조화는 가능하다.
- 자유와 평화의 도시를 위해서 유토피아를 애원할 필요는 없다.
- 조경과 환경조건 등 현실 그 자체는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심사평

'City of the Thousand Cities'는 독창적 설계형태 뿐만 아니라 개발단계, 교통계획, 경관, 개발밀도, 교통, 지속가능성, 우선순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분석적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있어 가장 구체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제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지와 농경지를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의 중심부를 비워둔 것이다. 이러한 중

심부의 '비어있는' 지역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요에 따라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인식되었으며, 도시와 농촌의 전이지대로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Identity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제시된 도시형태는 방사형과 격자형이 혼합된 형태로 표현되었다. 심사위원들이 중요하게 평가한 사항은 격자형태가 자연지

형뿐만 아니라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었다. 여기서 격자형태는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 팽창, 수축, 뒤틀림, 수용의 역할을 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만약 설계자가 격자형의 장점만을 강조하였다면 비난을 받았을 것 같다. 주변의 맥락을 적절히 수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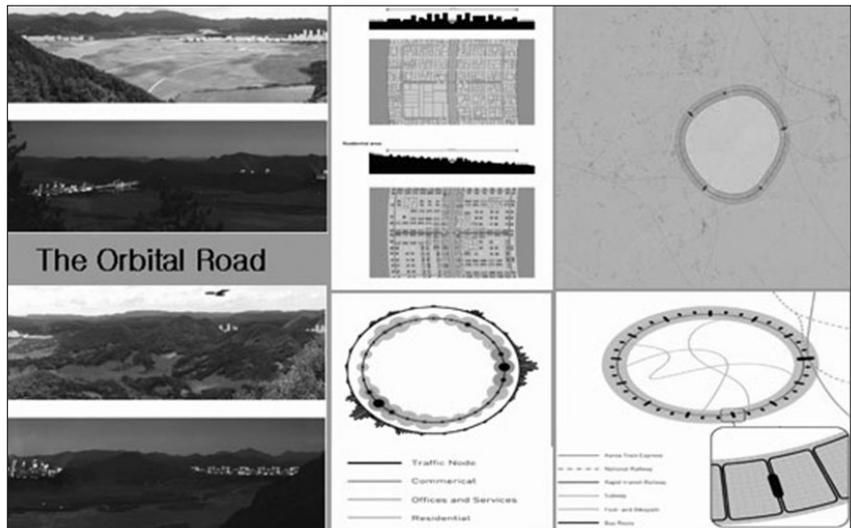
당선작 / The orbital road
Jean-Pierre Durig / 스위스

작품개요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되면서 기성시가지의 주민들은 점점 교외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세계 주요도시의 중심시가지는 쇠퇴하고 있으며, 통근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 중심복합도시가 해결할 과제는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설계자로 하여금 공원주변에 도시가 건설되는 반지형태의 도시를 제안하게 하였다. 또한 반지형태는 시민들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동일한 기회를 부여받는 민주적 도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심사평

'Orbital Road'는 도시형태론에 근거하여 작품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히 평면적인 표현에 그치지 않고 보조적으로 단면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 자연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 계곡, 언덕, 평지 등 다양한 지형적 요건들을 감안하여 상호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지형적 장애요소에도 불구하고 도시형태론적 특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모습과 유사하게 이 제안은 '격자'와 '자연'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시(時)적인 표현력을 강하게 구사한다. 만약 이 제안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고리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계획 인구를 적절히 수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당선작 / A Grammar for the City
Pier Vittorio Aureli / 이태리

작품개요

도시는 도시벽(City-wall)으로 언급된 것에 의해 폐쇄된 다양한 공간(room)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벽은 십자가 형태를 통해 추가적인 교화를 행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도시벽은 개별공간을 설정한다. 이 벽들은 도시공간을 만들고 틀을 형성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초적인 정주공간이다. 유용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서 도시벽은 연속되는 도시벽의 형태로 경관을 생성한다. 도시벽은 단지 건물의 집적체로 끝나는 것을 막는다. 가로, 도시벽, 도시공간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도시에 대한 형태결정론이 아니라 제로상태에서 출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심사평

심사위원들에 의해 'The Grammar for the City' 또는 'Expo'로 명명된 이 작품은 두 개의 매력적인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킨 특성을 제시했다. 우



선 막대형 건물의 배치, 기반시설의 부족, 매트릭스의 과격함에 근거한 격자형태는 심사위원들로부터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부분적으로 이상향적인 특성(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 현실적(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원형을 반영인) 격자형 기본구조는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작품의 응용이라는 차원에

서 볼 때, 가장 은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프레임은 서로 다른 실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매트릭스는 파격적인 배치 속에서 이질적인 구성요소의 복합성을 표현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조직적인 표현기법이 다른 당선작품에 표현된다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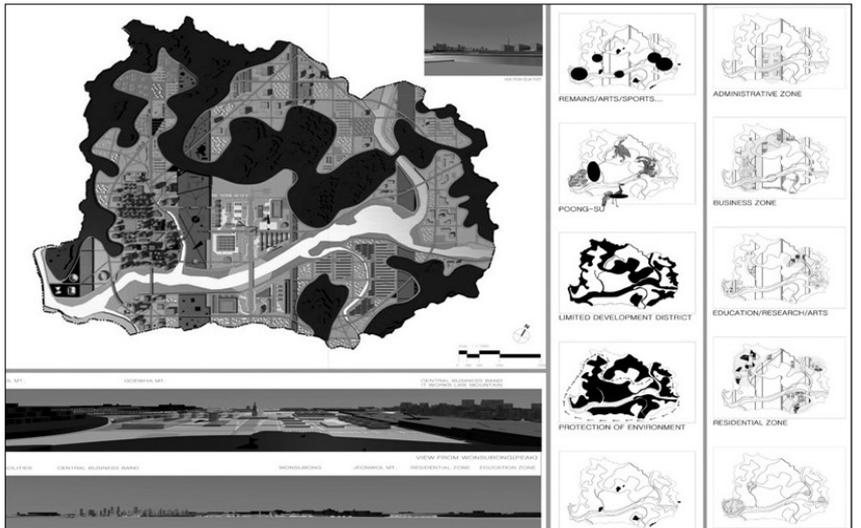
장려작 / 비보(裨補)
최현규(M.A.C.K 건축사사무소 대표)

작품개요

일정 높이(표고 50m)이상의 산을 생태계 및 유적 보호, 레저 등의 목적으로 보존시킨다. 배산임수형의 지형을 최대한 확보하고 녹지의 연결이 끊기지 않게 하며, 국토의 중심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교통망을 배치시킨다. 4개의 녹지띠를 만들어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영역간의 완충공간으로서 역할 하게 한다. 전통적 도시관으로 볼 때 행정영역(明堂地) 우측의 산이 너무 낮으므로 우측을 상업지역의 고층빌딩군으로 조성해 풍수에서의 우백호가 될 수 있게 한다.

심사평

이 작품은 중심축과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많은 의식지향적 계획원리를 도입한 가운데, 매우 단



순하지만 의미 있는 기법, 즉 산과 도시를 구분하는 도로의 관계설정과 같은 표현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의 인정을 받았다. 시각적 통일성을 제공하고 동일한 높이에서 양질의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높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목걸이처럼 도시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장려작 / City in Flow
Jurgen Kunzemann /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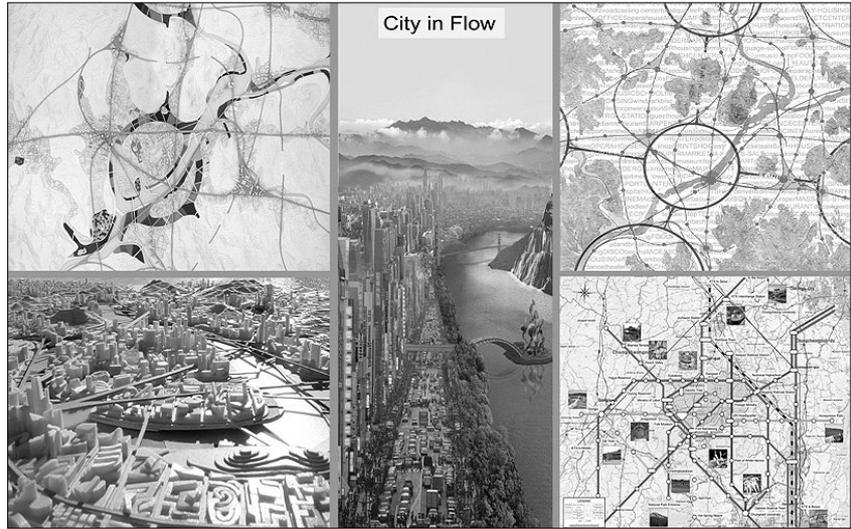
작품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는 3가지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지형상 New Orleans처럼 100년 홍수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무분별한 도시확산 그리고 전세계로부터 과도한 인구가 유입되어 서울처럼 과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3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유동성이다. 3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경우 공포를 유발하지만 유동성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자연재난, 대도시, 사람의 힘은 파괴적이지 않다. 건설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경우 21세기 도시를 건설하는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심사평

'City in Flow'는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관점에서 고리(ring)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도시의 중심부 주변에 고리형태의 도로로 표현된 그린벨트를 설치함으로써 설계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계획의 실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전형적인 이론에 충실한 고답적

인 계획이 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고리형태는 도시를 생태학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며 금강을 위한 하나의 범람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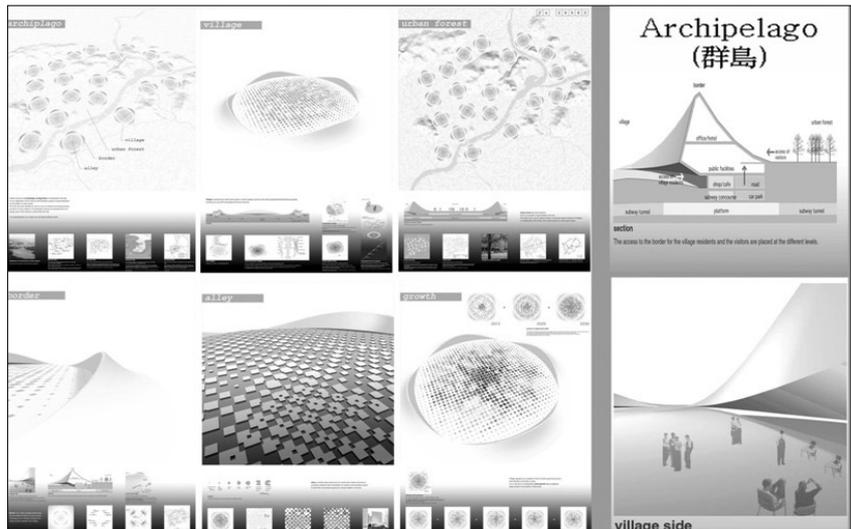
장려작 / Archipelagic city
Sumiya Mamoru / 일본

작품개요

자치권이 있는 도시의 공간단위인 마을은 다양한 시설과 전문성이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밀집한 공간이며 하나의 중심부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대상지에 20개의 마을이 군도처럼 분산되어 다수의 중심을 가진 하나의 도시가 된다.

심사평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으며 유토피아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있는 이 작품은 녹지공간에 의해 도시라는 섬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군도'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당선자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모호함을



표현하기 위해 농경지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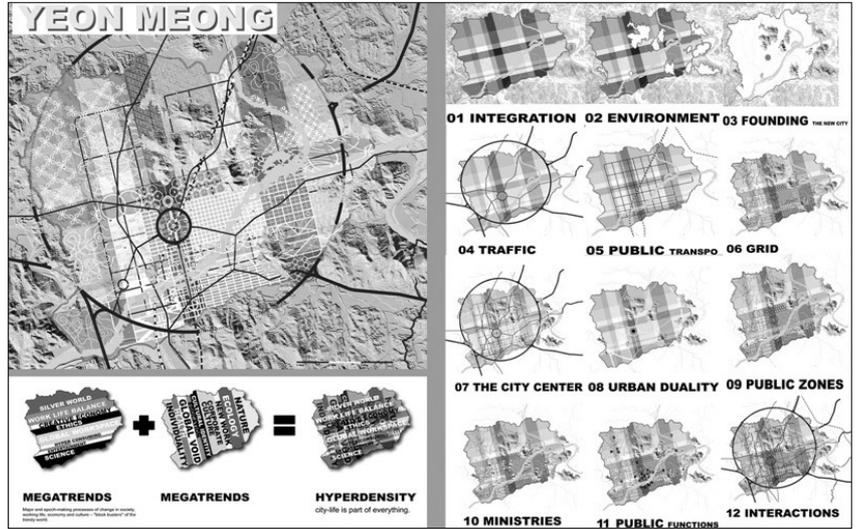
장려작 / Yeon Meong(음양)
Pucher Thomas / 오스트리아

작품개요

전통적 계획 및 아바니즘을 시작하기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처럼 세계적인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프로파일이나 브랜드 이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세계적인 추세(mega trend)를 수용하고 매트릭스를 연결시키는 형태 속에서 개발을 지속하며, 마스터플랜의 기본구조와 도시형태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초뿐만 아니라 도시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계획주체는 경제적 이슈를 찾아내고, 도시밀도간 적절한 배치, 국제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평

'음양(Yeon Meong)'으로 명명된 이 작품은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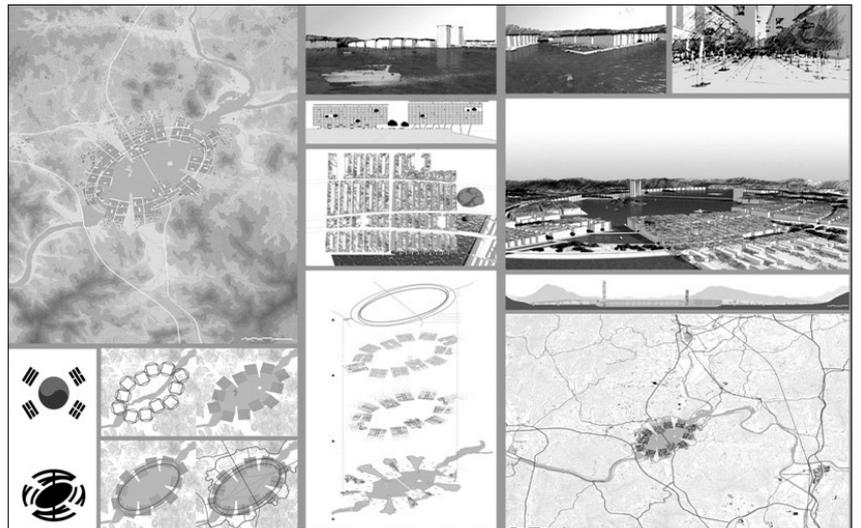
적으로 격자형 패턴을 도입하였지만, 실용성을 갖춘 띠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실용적인 띠 형태는 남북 및 동서방향으로 만들어졌는데, 근접하여 그려진 프로그램들의 띠들은 남북 축으로뿐만 아

니라 동서 축으로 형성되어 교차점을 형성시키고, 용도지역의 설정에 따른 단순함이나 커뮤니티간의 격리를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의 다양성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하고자 하였다.

장려작 / Nurturing a new urbanity
Cristian Undurraga / 칠레

작품개요

이 작품은 전통과 개발을 통합시킨 작품이다. 금강을 보존하고 도시의 특징을 주기 위해 중앙에 호수를 만드는 것이다. 산과 호수 사이로 12개의 구역(district)이 제안되었으며, 이 생활권(district)의 규모는 전통적 도시경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규모로서 옥상부문을 현재적으로 녹지 공간화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개별 구역에는 중앙에 정부공공기관과 업무지역이 있으며 양쪽으로 복합용도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정부기관과 상업지역은 중앙에, 외곽지역은 4개의 고리형 대로, 지하철 및 수상교통을 통해 지역차원의 도시기반 시설을 도시로 연결시키는 복합용도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구역 사이의 지역은 도시서비스 시설과 4개의 지역공원을 설치토록 하였다.



심사평

도심부의 금강을 확장하는 방식을 택한 이 작품은 새로 건설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위한 명확한 중심지를 제안하고 있다. 12개 중앙행정기관이 금

강에 면하도록 배치하였으며, 미래의 도시확장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외곽개발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